

횡성지역 전투에 참여한 의병장과 봉복사



“

국권을 빼앗기고 국민이 도탄에 빠져있는 때에 내가 일본에 투항하면 일본 치하에서 지위가 높아지고 부귀가 8역적(逆賊)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을 을 모르는 바 아니다. 그러나 나의 뜻은 나라를 찾는데 있으므로 강한 도적 왜(倭)와 싸워서 설혹 이기지 못하여 흙 속에 묻히지 못하고 영혼이 망망대 해(茫茫大海)를 떠돌게 될지라도 조금도 후회하지 않는다.

”

- 강원도관찰사 황철의 귀순권유에 대한 민공호의병장의 거부답신 중의 말씀

